

사철 솔향기와 갯바람이 만나는 땅, 안면도



김 동 정

여행칼럼리스트

한국에서 여섯번째로 큰 섬인 안면도는 원래 섬이 아니었다. 태안반도 남쪽 끝에 있는 태안곶이었다. 조선 인조 때인 1638년에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물(貢物)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물길을 만듦으로써 섬이 되었다. 그러다 1970년에 서산과 안면도를 잇는 다리가 가설되어 물과 다시 연결되었다. 안면도는 해안선이 아름답고 경치가 빼어나 일찍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지를 벗어나 고남 방향으로 3km쯤 가다보면 잘 생긴 소나무숲을 만나게 된다. 이곳 승언리에 소재한 『안면송』은 잡목이 전혀 섞이지 않은 소나무 군락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곳이다.

안면송은 습기가 적당한 안면도의 해양성 기후와 돌이 적은 토질 덕분에 웅이가 없이 곧게 자라고 다른 소나무와 견주어 같은 나이라도 키가 더 커 어른 셋의 아름으로도 안을 수 없는 굵은 것이 수두룩하다. 조선시대에는 인공적으로 소나무를 심어 그 쓰임을 나라가 관장하였는데, ‘황월장봉산(黃月長封山)’이라 하여 왕실의 관을 짜는 데에만 쓰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한다. 경복궁의 기둥도 이 안면송으로 세웠다.

이 소나무 군락은 자연림이 아니라 인공림이

다. 이곳에는 유전자 보존림으로 지정된 소나무 말고도 단풍류, 야생초 등 200여 종이 넘는 식물들이 수목원에서 자라고 있어 자연학습장 노릇도 톡톡히 한다. 넓이가 100ha가 넘는 넓은 면적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였고 군데군데에 통나무집을 설치하고 야영장도 마련해 놓아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다. 특히 휴양림의 삼림욕장에는 안면송이 무한정 뿜어내는 피톤치드(phytoncide: 나무들이 자기보호를 위해 발산하는 방향성 물질)의 싱그러운 향을 맡기 위해 공해에 찌든 도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반도 1,300리 해안에는 이름도 예쁜 해수욕장들이 많다. 만리포, 몽산포, 연포처럼 널리 알려진 곳도 있지만 사목, 음포, 학암포, 구례포, 방주골(백리포), 천리포, 통개, 원인, 달산포, 청포대, 삼봉, 기지포, 안면, 방포 등 아담하고 운치 있는 해변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이곳의 해수욕장은 수온이 높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들의 피서지로 알맞다.

한편, 안면도에는 야릇한 땅 이름이 많이 남아 있다. 꽃지, 바람아래, 셋별, 쌀썩은여, 밧개, 곰섬... 길가다 만난 주민에게 유래를 물어보면 누구나 구수한 사투리로 대답해 준다.

이들 중 꽃지와 바람아래는 안면도의 경관 지



역으로 손꼽힌다. 섬 서쪽 해안에 자리잡은 꽃지에는 안면도에서 가장 넓은 해수욕장이 있다. 이름하여 꽃지해수욕장.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백사장과 낮은 수심, 특히 수평선의 낙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해수욕장 오른쪽으로 보이는 할아배·할매바위는 장보고 시절, 군인 나간 남편과 그를 기다리던 아내가 만나지 못하고 돌이 됐다는 서글픈 전설이 서린 곳이다.

안면도와 육지를 잇는 2개의 다리 중 하나인 구 안면교를 건너다 보면 바다낚시를 즐기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다리 아래로 낚시줄만 늘어뜨려 놓으면 백조기라고도 하는 보구치, 우럭에다 물때가 맞으면 감성돔까지 올라온다. 천연기념물 제138호인 모감주나무(열매는 염주알을 만드는데 쓰인다) 군락이 있는 방포해수욕장 옆의 방포제도 낚시를 하기에 좋고, 이곳에서 보는 일몰 장관도 으뜸이다.

안면도는 볼거리도 많지만 먹을거리도 풍성하다. 특히 백사장 어항 위판장에 가면 대하를 파는 장이 선다. 대하는 일명 '큰새우'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촌마을 음식점마다 대하를 구워 판다. 대하는 먹는 방법 또한 특이하다. 처음에는 생것 채로 껍질을 벗겨 초장에 찍어 회로 먹는다. 회를 먹고 남긴 머리와 꼬리 등은 남은 새우와 함께 구워 먹는다. 구울 때에도 불판에 굵은 소금을 두툼하게 깔아놓고 뜨겁게 달아 오른 소금 위에 새우를 얹어 빨갱게 익혀 먹는다.

안면도에 왔다면 섬 여행도 해볼 만하다. 안홍



항에서 용도, 정족도, 가의도, 궁시도, 목개도, 외도, 장고도, 고대도 등으로 유람선과 여객선이 다닌다. 돛대바위, 수정바위, 독립문바위 등은 그 모양이 홍도를 옮겨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 안면도 가는 길

시외버스는 서울~태안 36회, 대전~태안 31회 운행, 열차는 장항선 홍성역에서 내려 시외버스 이용. 승용차는 서울~오산인터체인지~1번국도~38번국도~안중교차로~39번국도~아산만방조제~34번국도~삼교호방조제~32번국도~당진~서산~태안(안면읍)

※ 숙박

태안군청(0455-70-2544)에 문의하면 각 지역 어촌계와 해수욕장 변영회를 연결해 준다. 안면읍에는 안성장(73-4466)과 청하장(73-4067)이 있고 백사장가족모텔(72-3357)을 이용해도 좋다.

※ 먹을거리

태안반도에는 서해안 연안어족이 사철 내내 풍성하다. 해안가 어디를 가나 우럭, 광어, 도다리 등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다. 모항은 바다장어의 명산지. 6~8월이 성수기. 소금만 뿌리고 숯불에 구워먹는 '아나통구이'가 별미로 밭고개 포구의 오성회관(72-0659)이 잘한다.

'안면도 큰새우'도 그 맛이 일품인데, 백사장어항 앞바다에서만 잡힌다. 백사장어항의 큰새우 문의는 황해민박(73-5030)에 문의하면 된다. 수협어판장 앞 제일횃집(72-1610)은 주인이 경매인을 겸하고 있다.